



스위스 최고의 아페리티프.

로컬들이 디너 전에 즐겨 찾는 아페리티프 바

스위스 사람들이 저녁 먹기 전에 꼭 하는 일, 식전주

만나면 일 단 한 잔 한다

친구도, 연인도, 비즈니스 파트너도 아페리티프 한 잔에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고

스위스 도심, 로컬들에게 사랑 받는 아페리티프 바

스위스 사람들은 아페리티프(Aperitif)라 불리는 식전주를 무척 좋아한다. 저녁 식사 약속을 하면 꼭 술 한 잔을 한 뒤, 본 식사에 들어간다. 아늑한 공간에서 약간의 애피타이저와 함께 아페리티프 한 잔을 하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친구 사이든, 연인 사이든, 비즈니스 파트너이든 그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는 것은 당연지사다. 스위스 도심에서 로컬들에게 사랑 받는 아페리티프 바들을 소개한다.

1. 취리히(Zürich)의 프라우 게롤즈 가르텐(Frau Gerolds Garten)

2012년 취리히 서부(Zurich West) 지역에 임시 프로젝트로 론칭한 비어 가든이자 신에 키친 가든으로, 지금은 취리히에서도 슝, 아트, 야외 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있는 힙한 도심 가든으로 확고하게 정착했다. 하드브뤼케(Hardbrücke) 근교의 취리히 5 구역에 있는 아페리티프에 이상적인 가든이다. 햇살 가득한 테라스에서는 철로의 인상적인 뷰가 펼쳐지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저 멀리 알프스 산맥까지 보인다. 메뉴와 주변 환경은 계절에 따라 바뀐다.

2. 루체른(Luzern)의 인젤리(Inseli) 공원에 자리한 볼리에르(Volière)

라디오 3 파흐(Radio 3FACH)가 운영하는 인기 좋은 섬머 바, 볼리에르는 루체른 호숫가에 자리한 인젤리 공원 안에 위치해 있다. 4월부터 9월까지만 운영하는 바는 더운 여름 날 시원한 아페리티프 한 잔에 완벽한 곳이다. 3 파흐 바는 로컬 식재료를 사용하고, 다양한 음료와 맛있는 음식을 선보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제네바(Geneva)의 뱅 데 파키(Bains des Pâquis)

뱅 데 파키는 햇살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고 있다. 제네바의 명물, 젯또(Jet d'eau) 분수에서 수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레만(Léman) 호수의 절경을 한 아름 선사한다. 이 곳의 레스토랑은 로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남의 장소로, 아페리티프 한 잔에 완벽한 장소다.

4. 베른(Bern)의 알테스 트람데포(Altes Tramdepot)

이제는 베른의 맛집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알테스 트람데포는 핫한 장소가 되었다. 젊은이나 연세 지긋한 어르신 모두, 베른 시민이나 세계 관광객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아페리티프 한 잔을 즐기느라 여념이 없다. 직접 양조한 트램(Tram) 맥주가 이 곳의 스페셜티다. 햇살 가득한 테라스는 베른의 구시가지와 아레(Aare) 강, 곰 공원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5. 로잔(Lausanne)의 타 까브(Ta Cave)

와인은 보(Vaud) 주의 역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 지역에서 자라나는 다채로운 포도 품종을 로잔의 와인 셀러, 레스토랑 와인바에서 맛볼 수 있는데, 타 까브는 스위스 최초의 클라우드펀딩 와인 바다. 로잔 기차 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퇴근 후 한 잔 하기 완벽한 스팟이다. 펀딩 멤버들은 바를 찾을 때마다 무료 아페리티프 한 잔을 마실 수 있다!



6. 생갈렌(St. Gallen)의 로크레미세(Lokremise)에 자리한 다스 로칼(Das Lokal)

생갈렌 기차역에서 몇 분만 걸으면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 공간, 로크레미세에는 과거의 기차 엔진을 소장하고 있는데, 생갈렌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다. 이 곳에서는 연극, 영화, 무용, 아트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는데, 미식 체험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바와 여름에만 오픈하는 노천 광장은 친구들을 만나 생맥주나 칵테일 한 잔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7. 샤프하우젠(Schaffhausen)의 귀터호프(Güterhof)

과거 창고를 복원시켜 탄생한 귀터호프는 퇴근 후 한 잔을 즐기기에 완벽한 곳이다. 어디에서 마실지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귀터호프 바나 라인강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라운지, 강변 테라스에 자리한 야외석 중 한 곳을 정하고 자리를 잡는다. 머무르는 동안 아페리티프에 어울리는 맛있는 애피타이저 하나를 골라봐도 좋다. 허기가 더해진다면 제대로 된 디너를 위해 더 머물러도 좋다.

8. 취리히(Zürich)의 올드 크로우(Old Crow)

취리히 중심부에 자리한 올드 크로우 아페리티프 바는 클래식한 스타일과 분위기를 자욱하게 뿜어낸다. 바는 독특한 1,600 종의 스피릿 셀렉션으로 유명하다. 바텐더는 클래식한 칵테일과 올드 크로우의 다채로운 위스키 셀렉션을 선보인다.

9. 바덴(Baden)의 트리브구에트 프리슐루프트바(Triebguet Frischluftbar)

리마트(Limmat) 강변에 자리한 이 바에서는 바덴의 구시가지 풍경이 한 가득 들어온다. 산책이나 자전거를 즐기다가 잠시 쉬어가거나, 퇴근 후 친구들과 함께 모여 한 잔 즐기기에 좋다. 바에서는 홈메이드 타파스와 간단한 스낵을 선보여 아페리티프와 함께 곁들이기 좋다.

10. 윈터투어(Winterthur)의 히&다(hi&da)

여행하고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윈터투어의 히&다는 이 두 가지 테마를 한 데 묶어 가까이, 그리고 멀리서 찾아온 이들에게 맛있는 기쁨을 선사하고자 한다. 다채로운 지역 향토 요리에 더해 전 세계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